



수업기

형인 백작하면은 온산할벽(溫山畫壁)이다. 가슴시릴 만큼 차가운 온산할벽... 책자로 걸어 들어간다. '노랑'과 무심(無心)이란 두개의 푸른기둥 사이로 한발 한발 꾸준히 걸어 들어간다.

그림이 있는 불교 에세이

순간 오직 모르는 마음으로 걸어가고 한다. 그림이 안된다고 울지도 말고 그림이 잘 안다고 웃지도 말고.

작업을 하면서 항상 겪게되는 과정이다. 백작간두에서 새치레에 뛰어 내려야지 한 작품이 탄생한다. 소품일지라도 표류와 전환이 거듭된 후에야 꽃이 피어난다. 전환되는 순간은 기이 사공을 초월한 자리라고 부르는 표현할 길이 없다. 온산할벽이 열리는 순간이다. 긴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하나의 체화(體化)된 작품이 탄생한다.

술한 표류와 전환끝에 무심의 꽃은 피고...

그렇게 꾸준히 가다보면 바탕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그 바탕은 재료의 특성이 가장 자연스럽게 발현된 마담이긴 하나 그 특성만으로는 화면이 활력을 가질 수가 없다. 그 위에 진득한 리얼리티가 스며들어야 한다. 그것이 스며들지 못한 작품은 구르지 않는 바퀴와도 같다.

이러한 작업과정이 삶과 분리될 수 없는 작업형(作業形)이고 이렇게 하여 예술이 '살'이라는 수업기의 한 열주에 귀여지게 되었다.

남이 저물면 맑은 바람만 흐릿하게 오소서 바람도 지면 새벽빛만 남겠지...

오숙례 (회화)

지난 57호 분란 기사중 '고침' 첫행 '2' 16행 '동'이 탈자 되었기에 바로 잡습니다.

인연

어느 날 남편이 내게 다도(茶道)배우기를 권유했다. 차는 불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불교는 차(茶) 향기처럼 내게 다가왔다. 달 박하향기도 은은한 향기를 그래서 조금은 말을 줄인다.

다도를 접한 것이 간접적인 불교세계에 대한 체험이라면 본격적으로 불교에 분 투드린 것은 책을 하는 것이었다.

남편을 따라 짚어 갔다. '도대체 불교가 뭐지?' 하는 눈으로 도량을 돌아보니 학창시절 소풍이나 수학여행때 관광차 보던 것과는 달리 여겨졌다. 정겨움은 있지만 더욱 부담스럽고 크레만 느껴졌다. 무엇보다 어떻게 차신해야 할지 영동거지가 조심스러웠다. 남편은 '부처님께 인사드리고 제대로 할하는 것부터 배우야 한다'며 법담으로 이끌었다. 왜 할하는 지도 모르고(가르쳐 주지 않았으니까) 그저 열심히 짚을 했다. 이후 시간나는대로 불교를 아는 길이라니 하며 짚어 가서 짚을 했다. 처음엔 숫자를 헤아리기도 하고 불교가 뭐가 혹은 왜 이러고 있나 하는 상념들을 떠올리기도 했지만 이상스럽게도 시간이 가면서 모든 망상이 사라졌다.

'절(拜)을 많이 해서 절(寺)이라 한다'는 말도 있지만 짚어 가 짚을 하다보면 정말 하심(下心)이

생긴다. 남편은 신앙이라는 것은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것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남편이 불교신자라고 아내에게 짚어 나가라고 강요한다는 것은 '지극히 불교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개개인의 인격과 자존심을 존중해 주어야 하는 만큼 그 사람의 신앙선택의 자유도 주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이런 그의 태도 때문에 더욱 불교가 참으로 사람을 관하게 하는 종교임을 발견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침에 다치게 됐고, 남편이 하는 불교활동에 거부반응이 없어졌다.

살림하라 직장생활하라 몸은 고달팠지만 불교교양대학에서 2년간 공부하다 보니 진리의 바다에 몸을 담근 느낌이 들었다

그러자 남편은 내게 기도하는 방법 참신하는 법 등 불교의식을 가르쳤다. 내가 편만큼 하자 마지 않으려고 하는 말이 지금부터는 스스로 체험을 하면서 생활불교로써 터득해 보라는 것이었다. 나는 짚어 다니게 되자 할이기도 자주 하고 살고 사랑의 각종 평

사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싶었다. 그러나 살림하라 직장생활하라 몸이 고달파 지금껏 마음뿐이다. 불교를 알아야겠다는 의욕이 부족 커져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었다. 그래서 불교대학교육원에 수강신청을 한 것이 벌써 5년 전이다. 거기에서 기초교리부

터 시작해 고급과정까지 2년 동안 배웠다. 사실 공부하러 나가서 그 덕덕덕 줄기도 하고 시간맞추기도 힘들었다. 그러나 체계적인 공부를 하게 되니 불교에 대한 바른 이해가 생겼다. 불교대학에 다닌 것이 참으로 소중한 경험이다. 그곳에서 진지

여, 이 우유죽을 받으십시오. 당신 이야기로 훌륭한 농부입니다. 저 불멸의 과일을 열리게 하는 농부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29입니다. Bhagavat said : What is

acquired by reciting stanzas is not to be eaten by me. This is, O Brahmana, not the Dhamma of those that see rightly. Buddha rejects what is acquired by reciting stanzas, this is the conduct (of Buddhas) as long as the Dhamma exists. 그러나 스승은 말했다. 시를 읊은 그 대가로 얻은 음식을 나는 먹지 않겠다. 오, 바라드바자여,

한 도반들을 많이 만난 것은 큰 인연이라 생각한다.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넓고 넓은 진리의 바다 한 부분에 몸을 담근 느낌이 들어 나는 주위 많은 이들에게 초하루나 보름에 그냥 사찰에만 나갈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불교공부를 시작해 보라고 권유하곤 한다.

불교공부를 하다보니 남편이 정말 위대하게 느껴졌다. 머리론만 약하기도 어려운 불교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이니 말이다.

넉넉하지 못하고 종종시한인 시대에 들어와 처음엔 갈등도 있었지만 이러한 남편의 열에 찬 모습, 성실한 자세에 마음이 흔들렸다. 요새는 '이런 것이 사람은 모습인가?' 하며 오히려 만족스럽게 살고 있다.

사실 남편의 불교일을 하는 그 마음과 추진력은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다. 하루는 이런 말을 했다.

'내가 장승만 아니었으면 출가를 했을텐데... 이제 동명이 결혼시키고 내면 출가하겠다.'

나는 마음이 덜컥해서 다음과 같은 농담으로 응수했다. '출가하려면 지금 하세요. 한살이라도 적은 내(나)라도 나도 고생 많았고 다른 데(?)로 옮겨 아니예요'라고 그리고 나서 돌아 한바탕 웃었다. 허위 화 (대구시 북구 관음동)

이것은 진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시를 읊은 그 대가로 얻은 음식을 거절하는 것은 모든 깨달은 이와 생활태도다.

'reed (reed) 과거, 과거분사형 free from 자유롭게 하다. 'Venerable 존귀할 만한, 존경한 'recte (시정)정확하다, 상응하다. 한영우 기자

주부신행담



살림하라 직장생활하라 몸은 고달팠지만 불교교양대학에서 2년간 공부하다 보니 진리의 바다에 몸을 담근 느낌이 들었다

여, 이 우유죽을 받으십시오. 당신 이야기로 훌륭한 농부입니다. 저 불멸의 과일을 열리게 하는 농부...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29입니다. Bhagavat said : What is

한국의 정신 성철 큰스님



헤어지면 꿰매어서 입고입고하여 이제 더 이상 꿰매데도 없는 누더기 한벌. 무소유의 삶을 살다간 성철 큰스님이 남기신 유일한 유품입니다. 그러나 스님이 우리들에게 남기신 족적과 가르침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밝게 빛납니다. 찌렁찌렁하게 가야산을 흔들던 그 고함소리가 그리운 만큼 스님의 모습은 더욱 생생하게 저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스님이 들려준 이야기 우리 시대의 부처 성철 큰스님 평생을 성철 큰스님을 모신 원백스님이 그 동안 스님에게 들은 얘기들을 모아 책으로 엮었습니다. 성철 큰스님은 산승이라 하여 산을 내려오지 않았지만 그 명성은 높아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알려지지 않기도 하고 때로는 과장되게 그려진 면도 있어 이를 바로잡으며, 스님의 출생, 청소년기, 출가, 깨달음, 운수, 돈오돈수, 백일법문, 삼천배 등을 통해 가야산 호암으로 평생을 살아가신 수행자로서의 삶을 간결하게 담았습니다. 앞으로 이 시리즈는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값 3,500원

Advertisement for 'Sungcheol's Buddhist Education' (성철 큰스님 불교교육) featuring various products like audio books, video series, and study materials. It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publisher and prices for different items.